

# KMI 북방물류리포트

**VOL.192**  
OCT 15 2021

**발간년월** 2021년 10월 15일(통권 제192호) **주소**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  
**발행인** 김종덕 **총괄** 이주호 **감수** 최재선 **담당** 김엄지·유지원 **발행처**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**자료문의**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**TEL** +82-51-797-4776 **FAX** +82-51-797-4659



## 주요 동향

- GTI 참여국 물류대학, 동북아 물류 국제 세미나 개최
- 러 사할린 '유즈노 사할린스크' 신공항 건설추진
- 러, 자바이칼 '우도칸 구리 광산' 내년부터 본격 채굴
- 러 부총리, '북극 항로를 연중 항해할 수 있도록 준비'
- 소브콤플롯, Arctic LNG-2 운송 정기용선계약 체결

## 주요 통계

- 2021년 9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(건·액체화물)
-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-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



## 주요 동향



### GTI 참여국 물류대학, 동북아 물류 국제세미나 개최

#### ■ ‘동북아 물류 분야 전문가 양성 문제점과 과제’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 열어

- GTI(Greater Tumen Initiative) 사무국이 주도한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의 네벨스코이 해양대학교가 발의자로 참여했고, 우리나라에서는 인천대학교 물류대학, 몽골과학기술대학교, 동경해양과학기술대학교가 참여했음
- 네벨스코이 해양대학교의 미하일 홀로샤(Mikhail Kholosha) 총장 자문위원은 국경 간 물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신기술을 도입하고, 공통 규제 및 법적 문서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검문소, 항만, 물류 등의 ‘현장’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전문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
- 네벨스코이 해양대학교의 세르게이 스미르노프(Sergey Smirnov) 교수는 국경 간의 물류에서 전문가의 작업을 복잡하게 만드는 세 가지 주요 문제를 국가와 규제 당국의 요구 사항 불일치, 주요 항구 및 물류 허브에서 ‘기존 관행’에 대한 지식 부족,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라고 언급함
- 해당 세미나에서는 물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①해외 파트너들이 국가별로 관심 있는 물류 주제를 정하고, ②교육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녹화된 강의내용을 활용하고, ③물류 전문가를 위한 고급 교육 과정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, ④물류대학을 졸업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각 국가의 과학·교육·비즈니스 분야별 대표자들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음
- GTI 사무국의 교통부 코디네이터 세르게이 키디로프(Sergey Khidirov)는 이 행사가 국제기구에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교육 방향을 토론했던 해당 세미나는 다자간 협력의 발전을 위한 좋은 전망을 제공했다고 강조하였음

#### ■ GTI는 우리나라, 중국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교통 및 무역, 농업분야 협력기구

- GTI는 중국, 대한민국, 몽골, 러시아 등 동북아 4개국(일본은 옵서버 국가로 참여)의 정부 간 협력 형식의 사업으로 교통, 무역 및 투자, 관광, 농업, 에너지 및 환경과 같은 분야에서

다자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음

- GTI 영토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 통합 운송 및 물류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, 세관 절차의 통합, 통일된 형태의 회계 도입, 기반 시설을 위한 매개변수 및 조직 절차의 상호 조정, 검문소와 통신 경로, 물류 허브 및 항구 구축을 진행할 예정임
- 대륙을 횡단하는 통신망 구축은 GTI 영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, 특히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북극 지역은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 서로 필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동 연방 지구(FEFD) 개발을 위한 인프라 프레임 워크를 추가로 만들 예정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김혜영 리포터,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
(gpdud027@hufs.ac.kr)

---

#### 참고자료

a) [http://www.morvesti.ru/themes/1696/92057/\(2021.10.12. 검색\)](http://www.morvesti.ru/themes/1696/92057/(2021.10.12. 검색))

# 러 사할린 ‘유즈노 사할린스크’ 신공항 건설 추진

그림. ‘유즈노 사할린스크’ 공항 신 공항단지 건축 예상도



자료: <https://www.aex.ru/news/2019/7/10/199421/>

## ■ 유즈노 사할린스크 국제공항 신 공항단지 건설로 여객 처리능력 상승 예상<sup>a)</sup>

-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 위치한 ‘유즈노 사할린스크(Yuzhno-Sakhalinsk)’ 국제공항 내 현재 건설 중인 신 공항단지의 시간당 여객 처리 능력이 최대 2배 증가할 예정이라고 바실리 소볼레프(Vasily Sobolev) 건설 프로젝트 시공사 대표가 드미트리 그리고렌코(Dmitry Grigorenko), 마라트 후스눌린(Marat Khusnullin) 러시아 부총리에게 보고하였음
- 소볼레프 대표는 건설의 두 번째 단계에서 호텔과 상업 생산 시설 건설이 추가되며, 건설 면적은 4,000㎡로 확대되었고, 이로 인해 여객 처리 능력이 실질적으로 2배 증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
- 건설 계획 초기단계에서는 공항 여객 처리 능력이 시간당 800명 수준이었으나, 현재 1,600명으로 계획되고 있으며, 신 터미널 전체 부지는 4만 3,800㎡로 산정되고 있음
- 소볼레프 대표에 따르면, 현재 건설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최우선 작업인 건설 프로젝트 총괄 문서 및 건설 작업 문서 마련이 진행 중이고, 건물 해체 작업 또한 매우 어려우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

## ■ 러시아, 2017년부터 유즈노 사할린스크 국제공항 현대화 작업에 착수<sup>a)</sup>

- 건설 초기 계획으로는 2019년 건설 완료 후 실질적인 신 공항단지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음
- 그러나, 프로젝트의 질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납기가 연기되었음은 물론 장비 검사를 위해 제시되는 요구조건 관련 법령의 개정 또한 원인이 되어 작업 일정이 지연됨
- 이 프로젝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지역 사회·경제 발전을 위한 러시아 연방 인프라 대출 메커니즘을 통해 구현된 프로젝트로, 총 25억 루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아울러 프로젝트가 완공되면, 연간 공항 이용 여객 수가 500만 명까지 늘어나 현재 수치에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, 유즈노 사할린스크 공항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사할린 지역 내 주요 비행장에 내진 설비를 갖춘 활주로가 건설될 예정임
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---

### 참고자료

- a) <https://tass.ru/obschestvo/12659245> (2021.10.14. 검색)
- b) [https://sakhalin.aif.ru/money/bole\\_2\\_5\\_mlrd\\_rubley\\_iz\\_byudzheta\\_rf\\_potratyat\\_na\\_aeroport\\_y\\_uzhno-sahalinska?utm\\_source=yxnews&utm\\_medium=desktop&utm\\_referrer=https%3A%2F%2Fyandex.ru%2Fnews%2Fsearch%3Ftext%3D](https://sakhalin.aif.ru/money/bole_2_5_mlrd_rubley_iz_byudzheta_rf_potratyat_na_aeroport_y_uzhno-sahalinska?utm_source=yxnews&utm_medium=desktop&utm_referrer=https%3A%2F%2Fyandex.ru%2Fnews%2Fsearch%3Ftext%3D) (2021.10.14. 검색)
- c) <https://www.aex.ru/news/2019/7/10/199421/> (2021.10.14. 검색)



## 러, 자바이칼 우도칸 구리광산 내년부터 본격 채굴

그림.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자바이칼주



자료: <https://news.v.daum.net/v/20150627024200089>

### ■ 세계 3위 매장량의 자바이칼주 우도칸(Udokan) 구리 광산 생산 임박<sup>a)</sup>

- 1949년 구소련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을 찾던 중, 엄청난 양의 구리가 매장된 우도칸 광산을 발견했으나 혹한의 기후와 운송 조건 등으로 채굴을 중단
- 2,600만 톤 이상의 구리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우도칸 광산은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영구 동토층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음
- 광산 사업자인 우도칸 쿠퍼(Udokan Cooper)는 2008년 개발권을 구매해,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였으며, 이를 위해 약 25억 유로(약 3조 4,500억 원)의 투자를 유치

그림. 바이칼-아무르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망



<https://www.khan.co.kr/politics/politics-general/article/201808152136005>

## ■ 우도칸 광산에서 생산된 구리는 철도와 극동지역 항만을 이용해 운송<sup>b)</sup>

- 우도칸 광산에서 생산된 구리는 밤 철도(BAM, Baikal-Amur Mainline:바이칼-아무르 간선철도)와 극동지역 항만을 통해 운송될 예정
- 우도칸 쿠파 관계자는 구리 수요가 높은 아시아 시장, 특히 중국, 한국, 일본을 주목하고 있으며, 이들 국가에 수출이 용이한 운송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
- 1984년에 개통한 밤 철도의 길이는 약 4,300km로 제2의 시베리아 철도라고도 불림. 이르쿠츠크 타이세트에서 바이칼 호수의 북쪽을 지나 극동 연안의 소베츠키야가반까지 연결

그림. 우도칸 구리 광산 건설 현장



<https://www.forbes.com/sites/rpapier/2021/09/17/will-the-copper-deficit-derail-the-renewable-revolution/?sh=58632a65775f>

## ■ 탈탄소 정책으로 국제 구리 가격 급등, 향후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상<sup>c)d)</sup>

-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친환경 경제 전환에 필수적인 구리, 알루미늄, 니켈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, 이른바 ‘그린플레이션’ 현상이 발생
- 구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제작에 필수적인 음극재의 원료로, 전기차 한 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4~10배의 구리가 필요
- 또한,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정치적 혼란으로 구리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어 국제 구리 가격은 올해에만 약 20% 상승했으며, 이와 같은 흐름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
---

## 참고자료

- a) <https://www.euronews.com/green/2021/10/07/russia-reopens-dormant-siberian-mine-to-benefit-from-copper-price-boom>(2021.10.12. 검색)
- b) <https://www.france24.com/en/live-news/20211003-in-siberia-a-copper-mine-hopes-to-be-come-a-global-energy-pivot>(2021.10.12. 검색)
- c) <https://www.khan.co.kr/economy/economy-general/article/202109271425001>(2021.10.12. 검색)
- d) [https://biz.chosun.com/stock/stock\\_general/2021/05/27/B4HVHGDFY5DODMMIIGDFVZPVXU/](https://biz.chosun.com/stock/stock_general/2021/05/27/B4HVHGDFY5DODMMIIGDFVZPVXU/)(2021.10.12. 검색)



## 러 부총리, ‘북극항로를 연중 항해할 수 있도록 준비’

### ■ 러 부총리, 국영 TV 통해 2022~2023년에 북극항로 연중 운항 계획 언급<sup>a)</sup>

- 유리 트루트네프(Yuri Trutnev) 러시아 부총리는 국영 TV 채널 ‘Rossiya24’를 통해 북극항로의 “연중 상시 운항을 2022~2023년에 시작할 계획”이라고 발언
- 부총리는 “북극항로가 주요 항로가 되기를 바란다”면서 “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기반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.”고 밝혔다
- 현재 북극항로는 연간 최대 9개월 동안 이용이 가능한데, 러시아는 지난해 북극항로를 통해 약 3,3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했으며, 2024년까지 연간 8천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목표 설정

### 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극 항로에 정기 컨 선을 운항해야 한다고 발언<sup>b)</sup>

-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“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북극 항로를 통한 정기 컨테이너선의 운항을 시작해야 한다.”고 발언하여 관심을 끌었음
-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발과 연중 운항을 위해 액화천연가스(LNG)로 추진되는 쇄빙선과 초강력 쇄빙선을 건조한다는 계획

진화권 전문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hkjin@kmi.re.kr/051-797-4766)

백가희 실습생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#### 참고자료

- a) <https://www.reuters.com/world/europe/russia-aims-year-round-shipping-via-northern-sea-route-2022-or-2023-2021-10-11/>(2021.10.13. 검색)
- b) <https://tribune.com.pk/story/2318413/putin-calls-for-launch-of-regular-cargo-shipments-via-northern-sea-route-next-year>(2021.10.13. 검색)
- c) <https://www.arctictoday.com/russia-aims-for-year-round-shipping-on-the-northern-sea-route-in-2022-or-2023/> (2021.10.11검색)

## 소브콤플롯, Arctic LNG-2 운송 정기용선계약 체결

### ■ 러시아 소브콤플롯(Sovkomflot)·NYK, LNG 운반선 정기용선계약을 체결<sup>a)</sup>

- 노바텍 자회사인 노바텍 가스·파워아시아는 최근 북극 LNG-2 프로젝트 장기 운송에 투입하기 위해 화물 용량 17만 4,000m<sup>3</sup> 규모의 가스 운반선 4척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
- 이번 계약은 세계 유명한 선사들이 참가한 노바텍 가스·파워아시아 국제 입찰에서 합작 투자 회사인 소브콤플롯과 NYK(소유 지분 50/50)가 승리한 결과임
- 용선 계약 체결식은 9월 30일 소브콤플롯의 이고르 톤고비도프(Igor Tonkovidov) CEO, 노바텍 운영위원회 부의장이자 해사물류부장인 예브게니 암브로소프(Evgeniy Ambrosov), NYK 수석 전무이사 코노 아키라(Akira Kono)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렸음
- 아틀란틱맥스(Atlanticmax) 표준 크기의 새로운 LNG 운반선은 PAO Novatek의 Arctic LNG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액화 가스를 무르만스크 지역과 캄차크 지역의 환적 항만에서 유럽 및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최종 소비자에게 운송하고, 세계 시장에서 LNG와의 표준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임

### ■ 가스 운반선은 최근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현대적 디자인으로 건조<sup>a)</sup>

- Arctic LNG-2는 자본 비용을 줄이고 러시아 북극 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력 기반 베이스(OGT)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건설 개념을 기반으로, 연간 약 660만 톤의 LNG와 연간 최대 160만 톤 규모의 안정적 가스 응축수 생산을 위한 3개의 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임
- 이 선박에 적용되는 저속 디젤 엔진 프로펠러(X-DF)의 직접 구동식 추진 장치는 선박의 고효율 작동을 보장하고, 증기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임
- 또한 이 선박에 설치되는 재액화 시스템은 가스가 화물 탱크로 회수되도록 하여 운송 중 화물 손실을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음

### ■ 소브콤플롯은 정기 용선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

- 소브콤플롯 CEO 겸 경영이사회 회장 이고르 톤고비도프는, 소브콤플롯의 이러한 개발 전략이 운송 선대 운영을 통한 안정적 수익을 만들어 내는 좋은 기회라고 기대감을 표시 <sup>a)</sup>

- 소브콤플로트는 또한 국제해사기구(IMO)의 선박 환경 안전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가스운반선 건조를 통해 러시아 LNG를 세계 시장으로 운송하는 인프라 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힘
-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일본의 NYK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

## ■ 소브콤플로트, 가스 · 석유 생산과 운송 서비스 등에서 탁월한 실적

- 소브콤플로트는 2006년부터 가스운반선의 독립 소유기업인 동시에 운영회사로 활동해 왔는데, 프리미엄 해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최초의 러시아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
- 합작 투자 선박을 포함한 자체 및 용선 선박은 총 1170만 톤의 중량을 가진 136척의 선박이며, 그중 약 80척이 아이스 등급임
- 소브콤플로트는 사할린-1, 사할린-2, 바란데이(Varandey), 프리라즐롬노예(Prirazlomnoye), 노비 포트(Novy Port), 야말 LNG, 탕구(Tangguh, 인도네시아) 등 러시아와 세계의 주요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개발과 서비스에도 참여하는 등 최근 들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백가희 실습생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---

### 참고자료

a) <https://rus-shipping.ru/ru/prof/news/?id=45508> (2021.10.11.검색)



## 주요 통계



표. 2021년 9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(건화물 및 액체화물)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20/2021 증감율
극동지역	12.38 (+2.7%)	6.19 (-2.7%)	18.57	+0.8%
북극해	2.89 (+2.0%)	5.02(-2.9%)	7.91	-1.4%
발트해	10.2 (+7.9%)	10.38 (-1.4%)	20.58	+2.8%
아조프-흑해	10.00 (+6.6%)	11.14(+0.3%)	21.14	+3.0%
카스피해	0.2 (-30.8%)	0.34 (+0.4%)	0.54	-12.9%
합계	35.67(+4.8%)	33.07(-1.3%)	68.74	+1.7%

\* 주: 극동해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올가, 포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베츠카야가반, 데-카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안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란데이, 페벡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\*\* 주: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### 참고자료

a) <https://portnews.ru/news/318402/> (2021.10.15. 검색)

b) <https://portnews.ru/news/319764/> (2021.10.15. 검색)

표.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
(단위: 천 달러)

EAEU 코드	품목	해외*		CIS**		합계	
	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01-24	식료품 및 원자재	347,673.4	46,802.8	885.6	1,215.6	348,559.0	48,018.3
25-27	광물 제품	665,439.4	46,277.0	22,875.9	43,409.9	688,315.3	89,686.9
27	연료 및 에너지 제품	497,127.2	45,861.1	382.8	0.92	497,510.0	45,861.1
28-40	생고무 화학 제품	4,519.8	66,195.2	1,130.3	377.0	5,650.1	66,572.3
41-43	가죽원료모 피 제품	14.2	1,868.8	14.4	76.2	28.6	1,945.0
44-49	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94,796.5	6,586.7	232.5	145.9	95,029.0	6,732.6
50-67	섬유, 섬유제 품 및 신발	334.6	63,643.0	61.3	4,116.4	395.9	67,759.4
72-83	금속 및 금속 제품	18,321.4	59,017.6	920.3	3,077.4	19,241.7	62,094.9
84-90	기계류	10,851.8	589,084.6	1,591.0	2,267.2	12,442.8	591,351.8
68-71, 91-97	기타	308,070.6	55,283.7	40,659.5	312.5	348,730.1	55,596.2
	합계	1,450,021.6	934,759.4	68,370.8	54,998.0	1,518,392.4	989,757.4

\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\*\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#### 참고자료

a) <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>(2021.10.15. 검색)



표.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

(단위: 톤, 천 달러)

EAEU 코드	품목	해외*		CIS**				합계					
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
0302	냉장수산물	266	320.9	-	-	-	-	-	-	266.0	320.9	-	-
0303	냉동수산물	105,112	153,751.5	0	0.0	64	81.9	-	-	105,175.8	153,833.4	0	0.0
03031	연어	15,941	52,727.6	-	-	20	35.5	-	-	15,960.9	52,763.2	-	-
030331	광어	374	1,986.0	-	-	-	-	-	-	373.5	1,986.0	-	-
030332	가자미	924	851.0	-	-	-	-	-	-	923.8	851.0	-	-
030339	기타 넙치류	1,523	1,296.9	-	-	-	-	-	-	1,523.0	1,296.9	-	-
030351	청어	29,056	15,826.8	-	-	2	1.8	-	-	29,057.7	15,828.6	-	-
030363	대구	3,202	9,177.8	-	-	-	-	-	-	3,201.7	9,177.8	-	-
0303670000	명태	34,248	33,968.2	-	-	39	40.3	-	-	34,287.2	34,008.5	-	-
0303893	농어	2	5.9	-	-	-	-	-	-	1.6	5.9	-	-
030391	알류	1,131	119,388.0	-	-	-	-	-	-	1,131.2	27,226.5	-	-
030399	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	260	557.3	-	-	-	-	-	-	260.3	557.3	-	-
0304	생선 필레	7,324	24,097.1	0	0.0	30	65.3	-	-	7,354.3	24,162.4	0	0.0

0305	훈제 생선, 생선 가루	11	11.3	0	0.0	0	0.0	-	-	11.2	11.3	0	0.0
0306	갑각류	4,552	134,541.8	0	0.0	-	0.0	-	-	4,552.4	134,541.8	0	0.0
030614, 030633, 030693	게	4,161	129,073.7	-	-	-	0.0	-	-	4,161.3	129,073.7	-	-
0307	조개류	2,152	8,334.7	-	-	0	1.6	-	-	2,152.3	8,336.3	-	-
03072	가리비	757	1,317.6	-	-	-	-	-	-	756.6	1,317.6	-	-
03074, 03075	오징어 및 문어	883	2,453.8	0	0.0	0	1.6	-	-	883.6	2,455.3	0	0.0
0308	수생 무척추 동물*	0	0.0	-	-	0	0.0	-	-	0.0	0.0	-	-
03081	해삼	0	0.0	-	-	0	0.0	-	-	0.0	0.0	-	-
03082	성게	0	0.0	-	-	-	-	-	-	0.0	0.0	-	-

\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\*\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## 참고자료

a) <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>(2021.10.15. 검색)